

본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beatrix0125@gmail.com

교신저자. jealnkw@naver.com

공동저자. apostolus@hanmail.net

본당 사제에게 평화란 어떤 의미인가?

두 가톨릭사제의 생애 서사에서 나타난 평화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손서정(삶을 살리는 평화 교육 연구소 · 국제평화학, 가톨릭교육학 · 소장)

남경우(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문학, 통일인문학 · 학술연구교수)

정수용(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교의신학, 북한학 · 부위원장)

<https://doi.org/10.21738/JHS.2026.8.59.553>

I. 서론

■ 인간은 누구나 평화를 바란다.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고 갈등을 겪으며 평화를 추구해 왔다. 또한 전쟁이나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더욱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쟁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평화를 꿈꾸고 모색해 온 인간에게, 종교는 시대적 징표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고대인들은 신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종교적 체계를 확립하고,¹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적 전통은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며 화해와 성찰을 통해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가톨릭교회 또한 평화를 신적인 본성이자 신앙의 본질적 가치로 이해해 왔다.²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은 평화이시다(판관 6, 24)”라고 신의 근본속성으로 평화를 명시하였고, 신약성경에서도 구원자로 세상에 온 예수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 9)”이

* 본 연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2025 한반도평화나눔포럼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박우섭, 「평화의 개념 연구: 다양성과 공통성을 중심으로」, 『종통교육연구』, 65(2), 2017, 380~381쪽.

2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2판. ed.)』(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363~364쪽.

라는 선언을 통해 신의 본성을 향해 평화를 만들어야하는 인간의 소명을 강조하였다.

즉 가톨릭교회의 성경과 전통은 평화를 단순한 사회적 안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속성이자 인간이 실현해야 할 소명으로 제시하며,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전시켜 평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공적인 사명을 강조한 것이다.³ 이러한 신앙 전통 속에서 가톨릭사제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와 평화를 증거 해야 할 존재로 부각된다.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는 현대 세계 안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평화와 정의를 향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⁵ 특히 사제는 전례와 성사를 집전하는 역할을 넘어, 복음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세상 안에서 ‘대화 상대자’와 ‘중재자’로서 평화의 장인이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로 제시된다.⁶ 이처럼 가톨릭교회는 평화의 사도로서 사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2024)는 보편교회와 일반신자를 잇는 가교로서 가톨릭사제의 역할에 주목하여 설문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교회의 가톨릭사제들이 화해와 평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구성한 설문조사에는 전국적으로 460명의 사제가 응답하였고, 이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⁷

3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20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206항.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581~582쪽.

5 위의 문헌, 320~321쪽.

6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284항.

7 강우창 · 손서정 · 정수용 · 조용신,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의 인식과 과제: 가톨릭사제가 바라보는 통일과 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 2025.

이는 사제들이 사회적인 갈등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해야한다는 종교의 공적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언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제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실천사이의 괴리는 종교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신자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제들이 사회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현상은 오히려 종교적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고, 평화의 논의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⁸

이에 본 연구는 평화 인식과 실천, 공적인 선언과 생활세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삶의 경험을 주목하여 그 간극을 살펴볼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평화의 주제는 주로 정치적 국면에 집중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학술 차원의 연구도 주로 국제정치, 안보, 갈등 해결 이론과 같은 거시적 차원을 중심으로 평화의 문제를 다루었다.⁹ 교회적 차원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 역시 교회 문헌이나 신학적 해석에 집중하여, 보통의 한 인간으로 살아낸 사제의 삶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인식되고 구성되는지를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시행된 연구조차도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질적으로 탐구하기보다, 문헌연구나 양적연구 중심으로 특정한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⁰ 이러한 연구들은 평화에 대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천적인 삶으로 평화를 구현하여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8 위의 글, 83쪽.

9 서보혁 · 허지영 · 강혁민 · 이병성 · 김신현경 · 이성용 · 이나미 · 황수환 · 이찬수 · 조계원, 『폭력개념 연구: 열 가지 사나운 힘의 해부』, 모시는사람들, 2024.

10 정지수 · 김경이, 「평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인격교육』, 14(3), 2020, 65~86쪽.

없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개별 인간이 자신의 실질적인 삶과 연결하여 평화를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실현해내기 위한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¹¹

왜냐하면 평화가 개념적·교리적 차원에서 제시될 때 그것은 비교적 명확한 의미를 갖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삶의 사건과 관계 및 갈등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평화는 단일한 의미로 고정되기 어렵다. 동일한 ‘평화’라는 언어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울림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성장 배경, 관계 경험, 삶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사회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양적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평화의 의미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평화의 장인’이자 ‘중재자’인 가톨릭 사제가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현장에서 보편교회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자’이자, 일반 신자들과 가장 가까워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는 본당 사제에 집중하여 탐구할 것이다. 그들이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지는, 사제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 실천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현재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상호 연결성이 증대된 동시에, 분열과 갈등 또한 심화되어 인간 간의 관계는 오히려 파편화되고 있다. 평화를 향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국제 분쟁과 지역 갈등, 사회적 양극화와 혐오, 근본주의 종교와 결합된

11 손서정·최준규,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 모형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3(3), 2021, 5~23쪽.

정치적 선동이 평화 실현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종교는 화해와 대화의 언어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타적 이념과 결합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¹²

그러기에 사회적·종교적 차원에서 건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실천해야하는 종교의 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선언적 언어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평화를 하나의 개념이나 선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삶 속에서 형성하고 살아내는 과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본당 사제가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는 어떠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그가 살아온 삶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탐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교구의 본당에서 활동하는 사제를 연구참여자로 구성하여, 그들의 생활세계 안에서 평화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깊이 들여다 볼 것이다. 이는 평화를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 구체적 삶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당에서 살고 있는 가톨릭 사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살아내고 있는 평화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여, 본당 사제의 삶을 이해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그 경험과 의미가 다시금 사제에게 어떤 삶을 구성해 내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삶 속 이야기를 통해 본질을 탐구할 수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으로 하여, 본당 사제들이 구성하는 평화의 의미와 삶을 이해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란, 개별 인간이 살아온 경험

12 Mbembe, A., “The Society of Enmity”, *Radical Philosophy*, 200, 2016.

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적 바탕을 지닌 연구방법론으로, 개별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³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살아낸 경험을 시간성(temporality), 관계성(sociality), 장소성(place)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¹⁴, 삶을 단절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가 형성되고 이동하는 과정으로 읽어낸다. 이러한 접근은 사제의 삶을 사건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에 본 연구가 구성한 연구 퍼즐은 다음과 같다.

〈연구 퍼즐〉

- 연구참여자는 어떠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의미를 구성하는가?
- 연구참여자는 시간과 관계, 사목 현장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형성하고 살아내는가?

II. 세상과 교회가 바라보는 평화

1. ‘삶을 살리는 과정’으로서의 평화

평화는 오랫동안 전쟁과 폭력의 부재라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평화는 단순히 외적 갈등이 없는 상태로만은 설명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 사회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화해를 경험하며 살아간

13 Clandinin, D. J.,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2013; Clan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14 홍영숙, 『내러티브 탐구: 이론적·철학적 바탕에서 논문작성까지, 그리고 Q&A』, 학지사, 2024.

다. 그러므로 평화는 고정된 상태라기보다 인간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⁵

평화학의 논의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 Boulding(1978)은 전쟁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안정된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를 구분하였고, Galtung(1996/2000)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¹⁶ 특히 Galtung에게 소극적 평화가 직접적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극복하고 정의, 통합, 조화,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¹⁷ 이러한 논의는 평화를 폭력의 부재에서 관계의 회복과 정의로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확장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삶을 살리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삶을 살리는 평화’란 인간을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지닌 생명력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확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¹⁸ 이는 개인의 내면적 안정과 건강을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공동체의 질서, 사회적 정의, 생태적 생명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평화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는 인간의 삶과 분리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사건과 관계 안에서 구성되는 의미이다. 평화는 고통과 갈등이 제거된 후에야 도달하는 이상적 상태가 아니라, 갈등과 상처를 통과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와

15 손서정 · 최준규, 앞의 글, 10~11쪽.

16 Boulding, Kenneth E., *Stable Peac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 1978; Galtung, J.,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 정대화 · 임성호 · 김승채 · 이재봉 옮김, 들녘, 2000.

17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9(1), 2015, 134쪽.

18 손서정, 『삶을 살리는 청소년 평화교육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2024, 36쪽.

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구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탐구한다는 것은, 곧 한 인간이 어떠한 삶의 경험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과 연결된다.

2. 평화를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톨릭 사제

가톨릭교회 역시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사회적 안정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과 교회 전통 안에서 평화는 하느님의 속성이며, 인간과 하느님,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사이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삶의 질서로 이해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기쁨과 희망(1965/1968)』에서 평화를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질서와 공동선의 실현으로 설명하였고,¹⁹ 교황 요한 23세는 『지상의 평화(1963)』에서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평화의 토대로 하여 모든 인간 생활에서 상호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제시한다.²⁰ 이러한 가톨릭적 평화 이해는 평화를 선언이나 이념이 아니라, 인간이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할 소명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러한 평화의 소명은 사제직의 정체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현대의 사제 양성(1992/1993)』은 사제를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성사적으로 대신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사제가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 사랑의 봉사를 통해 교회를 건설하고 하느님 백성을 이끌도록 부름 받았다고 제시한다.²¹ 따라서 사제는 평화를 가르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무를 통해 화해와 일치를 증

1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앞의 문헌.

20 교황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163항.

2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15항.

언해야 하는 존재이다.

교황청 성직자성의 『사제성소의 선물(2016/2018)』은 사제 양성을 일회적 교육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통합적 형성 과정으로 이해한다.²² 이 문헌은 사제 양성의 네 차원으로 인성, 영성, 지성, 사목을 제시한다. 인성 차원은 사제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인격적 성숙을, 영성 차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 지성 차원은 복음과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는 이성적 성찰을, 사목 차원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을 지향한다.²³

이 네 차원은 사제가 평화를 살아가는 방식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사제에게 평화는 개인적 내면의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과의 관계, 타자에 대한 이해, 시대 현실에 대한 분별, 공동체를 위한 사목적 실천 안에서 통합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가톨릭 사제의 평화는 단지 교회 문헌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그것은 사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 관계의 기억, 사목적 만남과 선택 속에서 구체화되는 형성의 과정이다.

3. 삶의 이야기 속에서 형성되는 평화

본 연구가 가톨릭 사제의 평화 이해를 내러티브 탐구로 접근하는 이유는 평화가 삶의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평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성장 배경, 관계 경험, 신앙의 여정, 사목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사제가 말하는 평화를 이해하기 위

22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 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23 위의 문헌, 89항, 102항, 116~117항, 120항.

해서는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살아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인간 경험이 시간성, 관계성, 장소성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보았다.²⁴ 이는 사제의 삶을 개별 사건의 목록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관계와 장소 안에서 의미가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하나의 서사로 이해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는 단순한 방법론적 선택이 아니라 평화 이해와 맞닿아 있는 인식론적 접근이다. 평화가 삶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는 것은 생애의 이야기이다. 사제가 경험한 가족, 공동체, 상처, 소명, 사목적 만남은 각각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평화의 의미가 형성되는 삶의 장면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두 본당 사제가 어떠한 삶의 경험을 통해 평화를 배우고, 잃고, 다시 구성하며, 사목 현장 안에서 살아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평화를 하나의 교리적 개념이나 규범적 선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삶 속에서 형성하고 증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본 연구는 가톨릭 본당 사제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경험을 단편적인 사건

24 Clandinin & Connelly, *op.cit.*.

의 집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해 가는 삶의 이야기로 이해하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구성해 간다.²⁵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사제가 인식하는 평화를 하나의 완결된 결과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형성되고 있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연구참여자인 사제가 겪은 경험이 시간과 관계, 사목의 맥락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1. 연구참여자 구성과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는 지역 교구에서 본당 사목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가톨릭사제 2명이다. 본문에서는 연구참여자를 각각 ‘프란치스코’와 ‘미카엘’이라는 가명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 인간이 지닌 고유성과 삶의 이야기가 지닌 개별성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두 연구참여자는 모두 50대 남성으로 본당 사목을 수행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교구명, 본당명, 직책 및 세부 경력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그 기준으로 첫째는 본당 사목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는 평화와 관련된 특수한 사목 경험이 없고 일상의 본당 사목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일 것, 셋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신뢰의 대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한 명은 공동연구자의 소개를 통해 연구책임자와 관계를 구성하였고, 다른 한 명은 연구책임자와

25 홍영숙,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려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2019, 81~107쪽.

의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인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과 소속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수행되었으며(승인번호:1040395-202506-11), 녹음파일과 전사본 및 연구자료는 연구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하였다.

2. 자료 구성과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인터뷰대화는 단순한 자료수집 절차가 아니라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연구책임자가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연구참여자와 상호 소통하며 각 3-4회의 인터뷰대화를 진행하여 자료를 구성하였다. 프란치스코 신부와는 두 차례의 인터뷰대화와 한 차례의 추가인터뷰를 진행하고, 중간텍스트 확인 및 보완 통화를 통해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미카엘 신부와는 연구책임자가 라포 형성을 위한 첫 만남 이후, 세 차례의 인터뷰대화와 두 차례의 보완 면담 및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인터뷰대화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본당 회의실과 사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대화 시간은 약 9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인터뷰대화는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연구책임자가 반복 청취하며 직접 전사하였다. 이후 현장노트와 연구 메모를 함께 검토하며, 현장텍스트(field texts)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책임자가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시간적인 순서, 경험의 장소, 주제별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연구참여자의 삶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중간텍스트(interim texts)를 작성하였다. 중간텍스트는 연구참여자와 다시 공유하여 사실관계와 의미를 함께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주요한 맥락 파악과 해석의 비약 등을 재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계적반응집단인 공동연구자들과 회의를 통해 꾸준히 재검토하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들 간의 반복적인 대화 속에서 연구텍스트(research texts)가 형성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치 않는 정보를 수정하고 삭제하며 상호 조정하는 협의의 과정을 통해 최종 연구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단일한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의 생애사적 코딩 분석을 함께 활용하였다. 공동연구자는 인터뷰 자료를 반복하여 읽고 코딩한 뒤 코드별 인용문과 의미단위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참여자의 생애에서 평화가 어떠한 경험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신부와의 인터뷰대화에서는 32개의 코드와 42개의 의미단위를, 미카엘 신부와의 인터뷰대화에서는 42개의 코드와 6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별 분석을 종합하여 두 사제의 평화 경험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생애사적 경험과 사목적 실천이 평화의 의미 구성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검토하였다.

연구책임자는 이러한 공동연구자의 생애사적 분석과 자신이 구성한 중간텍스트 및 내러티브 해석을 상호 대조하였다. 연구자들은 특정한 하나의 해석에 합의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서로 다른 분석에서 드러난 사건과 관계의 의미, 생애의 전환점, 평화가 형

성되고 흔들리며 재구성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해석적 대화를 통해 각 참여자의 삶을 관통하는 주요 의미를 재검토하고, 이를 최종 연구텍스트의 서사적 구조와 핵심 주제를 구성하는데 반영하였다.

이러한 코딩과 비교분석은 연구참여자의 삶을 고정된 범주로 환원하거나 사례 간 일반화를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코드는 각 생애에서 반복되거나 전환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재해석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적 매개로 활용하였다. 이에 연구책임자는 인터뷰대화 전사본과 현장노트, 공동연구자의 분석 자료를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과 관계, 감정, 전환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미를 읽어 나갔다.

이후 내러티브 탐구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을 중심으로 삶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여,²⁶ 참여자의 이야기를 ‘삶의 장면(scene)-전환점(turning point)-현재의 의미’라는 서사적 구조 안에서 이해하여 연구참여자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텍스트를 완성하였다.

3. 연구의 엄밀성과 연구자의 성찰

연구의 해석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대화 전사자료, 현장노트, 중간텍스트, 공동연구자가 작성한 코드별 인용문과 생애사적 분석보고서, 교회문헌과 선행연구를 지속적으로 상호 검토하였다.

26 Dewey, J., *Art as Experience*, New York: Minton, Balch & Company, 1934; Clan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특히 연구책임자의 내러티브 해석과 공동연구자의 생애사적 분석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읽히는 지점도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전문가와 3회에 걸친 자문을 통해 연구방법론적인 엄밀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삶에서 평화가 형성되는 복합적인 맥락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중간텍스트를 공유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삶의 의미가 참여자의 경험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수행하였으며, 혹여 참여자가 꺼려하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연구텍스트 발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함께 삶의 의미를 재구성(co-composition)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소장과 연구위원인 연구자들은 교회 안에서 형성된 관계를 연구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참여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기대가 해석에 개입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책임자는 교회 현장과 평화교육을 함께 연구해 온 자신의 위치성이 자료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여,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기보다 공동연구자와 연구참여자들과의 검토를 반복하며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두 본당 사제의 삶을 통해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제의 경험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평화가 사제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지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석적 이해는 내러티브 탐구가

지향하는 인간 이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양적 실증연구가 지닌 한계의 틈새를 발견하고 이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가톨릭사제의 인식과 실천을 재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제의 삶에서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평화’

1. 프란치스코 신부의 이야기

1) 돌봄의 기억에서 시작된 평화

프란치스코에게 평화의 첫 기억은 부모의 돌봄과 가족 안에서의 일상이었다. 프란치스코의 부모님은 둘 다 가톨릭 신자였다. 만주에 사시던 아버지 가족은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부산으로 갔다가, 전쟁 이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부모와 함께 지내고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며 성당과 시장을 오가던 시간을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기억으로 회상하였다. 당시의 평화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감정이라기보다, 부모의 따뜻한 돌봄에서 생겨난 믿음 속에서 형성된 삶의 감각에 가까웠다.

프란치스코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였고, 그들의 존재는 자신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근원적인 확신이었다. 특히 그의 가족은 어린 시절 자주 아팠던 프란치스코를 위해 도시를 떠나 멀리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 아픈 프란치스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며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은, 프란치스코에게 몸의 회복뿐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을 주며 평화 이해에 깊은 흔적

을 남겼다.

아플 때 어머니랑 같이 묵주기도하면,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 계속 해 주시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실 때, 아~ 그때 내가 낫고 있나 보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하느님,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그게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이러한 평화의 감각은 신앙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배를 쓰다듬어주던 장면에서 그는 자신이 낫고 있다고 느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즉 프란치스코에게 신앙은 관념적으로 습득된 교리가 아니라, 몸의 아픔을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과 결합되어 체화된 것이다. 신앙을 돌봄의 언어를 통해 경험하였으며, 평화는 아픈 몸이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안정되는 감각으로 체험되었다.

주일 학교를 위낙 어릴 때부터 했었으니까... 이제 애들하고 노는 것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교리나 교리 안에서 이제 활동 같은 거 하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럴 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진짜로 말 그대로 가족처럼 대해줬던 어떤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았을 때. (중략) 초등학교 때까지는 딱 8시 반되면, 무조건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저녁 기도를, 30분 정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부모님이 시킨 거죠. 그럼 이제 기도하기 싫으면, 방구도 끼고 트림도 진짜 다 했죠. 이제 묵주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유 기도도 하고, 자유 기도는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프란치스코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성가대 활동과 가족의 기도 시간을 평화로운 기억으로 회상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앙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던 생활양식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부모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처음부터 관계 안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의 평화는 혼자 누리는 내면의 안정보다는,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뢰와 안전한 관계 안에 머무는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평화는 사랑받고 보호받았던 돌봄의 기억에서 비롯된 관계적 감각이며, 이후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평화 이해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유년기의 경험은 평화가 교리적 개념보다 관계적 안정감으로부터 먼저 형성됨을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 돌봄(natural caring)’은 프란치스코에게 자연스럽게 돌봄을 인식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윤리적 돌봄(ethical caring)’으로 이어진다.²⁷ 이에 더해진 신앙의 공감각적 경험은 이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목적 실천으로 이어졌고, 프란치스코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평화의 원형을 구성한다. 그의 평화 서사는 바로 이 돌봄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

2)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연민과 소명

어린 시절 돌봄 속에서 형성된 평화의 기억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의 상처를 향한 감응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

27 N. Noddings,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을 마치고 귀가하던 프란치스코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한다. 그런데 그 사건은 비행청소년들을 단순한 가해자로 인식하기보다,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조건과 가정환경을 먼저 생각하게 하였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이제 집에 갈라면 작은 야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친구랑 넘다가 이제 깡패들을 만났어요... 여자애하고 남자애들하고 한 열댓 명 있었나 봐요. 본드를 붙고 있더라고요. 가다가 만났는데, 뭐 애네들이 만나자마자, 이제 막 두들겨 패니까 코뼈가 부러졌네. 내 친구는 당연히 옆드려 있어가지고, 다른 부위만 멍이 들었고, 나는 이제 맞다 코뼈가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 아저씨들이 이제 몇 놈을 잡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서 또 본드를 붙고 있다가, 근데 이제 경찰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합의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환경이 좀 어렵고... 그리고 다 어렵고 이런 사람들 애들이니까.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의외의 사건을 맞닥뜨린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코뼈가 부러져 아픈 것 보다, 자신을 때린 아이들에게 괜히 더 신경이 쓰였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과 같이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탈선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보다 상처 입은 삶을 먼저 바라보게 된 경험은 그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본인도 청소년이던 프란치스코는 자신과는 다른 처지에 놓여

있던 청소년들에게 자꾸 마음이 쓰였고 안타까웠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프란치스코는 신학교로 입학할 결심을 하였다. 처음에는 돈보스코 성인이 떠올랐다. 돈보스코 성인은 19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제로 빈민가와 감옥에 있던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가 설립한 살레시오 수도회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카리스마를 지니고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이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프란치스코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회보다는 교구에서 제약 없이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성향에 더 맞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인 본당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사제직은 종교적 성공이나 자기실현의 길이 아니었다. 그저 상처받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응답이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싸고 삶을 관통하고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향해 있었다.

이러한 소명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이상과 현실의 큰 괴리와 불합리한 규율에 실망하여, 신학교 생활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다. 결국 군 복무를 하면서 다른 삶을 계획하고 수능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왔을 때, 인사를 하러 들른 본당의 주임신부님이 영뚱하게도 영어공부도 하고 견문도 넓힐 겸 아일랜드로 가라는 것이었다. 수능시험을 앞둔 프란치스코에게 그 제안은 마냥 편치 않았고 의아했으나, 첫 해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회에 혹해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떠났다.

아,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아일랜드를? 술 치먹더라도, 그냥 거기 가서 치먹어. 여기서 먹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 놀자. 수능은 그 다음에 보든지 하여튼. (중략) 근데 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만큼 청소년 애들이 정신병원에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정신병원이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 있잖아요. 그만한 건물보다 더 큰데, 그게 정신병원인 거예요. 참, 야~어마무시하구나. 진짜. 그런데 정말 거기서도 청소년들을 많이 봤어. 저 아이들은 왜 여기와 있어요? 그랬더니. 가정환경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아, 우리나라랑 비슷하구나. (중략) 근데 그렇게 정상이었다가, 한 번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책상 부시고 유리창 깨고 뭐. 남자 간호사 둘이 막 붙잡고, 이제 다시 병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런 걸 봤죠. 그때 내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했지? 했던 게 다시 생각나, 그때.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복학을 했죠.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은 그가 처음 품었던 문제의식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다. 현지 정신병원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학업과 가정환경, 사회적 고립 속에서 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처음 사제의 길을 선택했던 이유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는 삶의 여러 흔들림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의 삶 앞에서 돌봄의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족’ 공동체 경험을 제안한 이정민(2022)은 생애초기에 ‘자연적 돌봄’을 경험하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에게 결핍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윤리적 돌봄’이 제공된다면 전환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²⁸ 프란치스코의 사제 소명 또한 자신이 풍족하게 받은 자연적 돌

28 이정민,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족’: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7)(2022), 8쪽.

봄이 윤리적으로 연결되어, 상처받은 청소년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한 감응 속에서 점차 형성된 것이다. 그의 사제직은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삶의 방향으로 자리 잡아 갔다.

3) 흔들림을 통과하며 깊어진 평화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평화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한 관심만으로 최종적이면서 완성적인 형태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시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신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기대와 달리 불합리한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적응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황하였고, 사제의 길을 포기하려는 마음도 여러 차례 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은 그의 삶을 멈추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을 가장 깊이 돌아보게 된 것은 부제서품을 받기 직전에 갔던 피정에서였다. 대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이전까지 쉽게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교회와 타인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이 앞섰다면, 그 시간에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을 느끼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마주하였다.

진짜 어릴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누구한테 상처를 줬고 보였는지 다 올라와, 다. 순간 막 정말 영화 필름 돌리는 것처럼 좌르르 나오는데, 어 그 양이 막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

로 막. (중략) 그때 내가 정말 사제의 길을 갈 수 있나, 이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상담, 면담해 주시는 신부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고, 진짜 바닥을 한번 딱 치게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여기 못 있겠다. 예전에는 남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이랬는데, 그 죄의 목상을 한 그 시기에 내가 교회에 있기에 좀 많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때, 또 나는 못 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야겠습니다.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그러나 그 경험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는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싸주는 듯한 깊은 평화를 경험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 순간을 지금도 말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신부님한테 그런 말씀드리니까, 이제 피정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나가긴 뭘 나가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근데 그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마음에 들었던 느낌이,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느낌, 그때 느꼈던 마음의 평온과 평화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 같아요. 그때 그, 지금도 그 느낌은 받지는 못하지만, 그게 아마 저에게는 정말 큰 체화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다 라는, 그게 저에게는 진짜.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이전까지 평화를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정의

하던 프란치스코에게 이 경험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어주었다. 스스로에게도 숨겨 두었던 상처와 흉터를 바라볼 용기를 주었던 체험은 십자가로부터 부활 체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온전한 돌봄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되었다.²⁹ 자신의 의로움이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여지는 경험 속에서, 평화가 자격 있는 자가 획득하는 보상이 아니라 한계를 직면한 자리에서도 수용되고 있음을 느낄 때 발생하는 은총의 감각임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프란치스코에게 흔들림은 소명을 약화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평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모자란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이후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목 현장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이해와 기다림을 실행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이처럼 자아에 대한 이해는 공적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자연스런 인간적인 돌봄에서 느끼던 세상의 평화는 세상이 절대 주지 못하는 온전한 수용의 신적 평화로 확장되었다.

4)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형성된 평화 공동체

사제가 된 프란치스코에게 평화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계기는 청소년 사목 경험이었다. 자신에게 낯선 분야였지만, 밤새며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고 열심히 현장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문한 장애인 주일학교는 그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9 Halik, T., 『상처 입은 신앙: 내 상처를 보고 만져라』, 오민환 옮김, 분도출판사, 2018, 41쪽, 101쪽.

또 한 번의 시선의 충격이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목적 마인드가 전혀 없었는데. (중략) 아, 그때 깜짝 놀랐네. 진짜...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았어. 와, 애들이 막 뛰어나오고, 막 소리 지르고, 방방 뛰고. 근데도 뒤에 있는 일반 신자들이 되게 많이 미사를 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는 거야. 나 혼자 식은땀 흘리면서, 이게 뭐지? 이게 미사인가 이게. 근데 미사 주례하고 있는 그 보좌신부도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8)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소리치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미사가 프란치스코에게는 너무나 이상스럽게 보였지만, 공동체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장애인을 너무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처음으로 자각하였다. 그 이후, 프란치스코는 여러 장애인주일학교를 방문하며 장애인에 대해 알고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프란치스코를 찾아왔다. 장애인 부모들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더욱 깊이 흔들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부모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를 듣고서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가 없었다.

여름에 그 자매님 두 분이 수박 한 통을 들고 왔었어요. 자매님 두 분이.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장애인 부모들. 찾아와서 부서 설립을 해달라고. (중략) 그런데 자기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그냥 한 2시간 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일이냐면, 이제 애를 데리고 미사를 갔는데, 미사 끝나고 수녀님이 조용히 부르시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신부님이 미사 때 분심이 많이 든다 하시니, 다른 성당 가서 미사하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뭐 다른 성당을 가도, 아이가 또 그런 상동 행동을 하니, 똑같은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한두 번은 겪은 게 아니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말 신앙으로 버티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회 마냥 그런 홀대를 받는 게, 그런 처우를 받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8)

그날의 장면은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과 평화의 공간이리라는 프란치스코의 전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평화는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의 특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이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부모들에게 어떻게든 장애인 사목을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애인 교육을 공부하고, 특수학교를 방문하며 현장을 익혔다. 미국 교회의 자료를 수집하여 장애인을 위한 첫영성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이 과정은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이해의 충위를 넘어,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 및 제도를 변화시키는 실천의 층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화는 나를 포함한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제된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감각과 제도를 구

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실천이자 평화의 문화를 확장하는 과정인 것이다.³⁰

5) 폭풍 속에서도 꾸려낸 보금자리, 그러나 남겨진 숙제

청소년, 장애인, 본당 사목을 거치면서 프란치스코가 겪은 경험은 커다란 관점의 변화를 불러왔다. 사제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그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사회와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배제와 고통을 함께 들으며, 그는 자신이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신자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영화 한 편 찍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제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뭔가 교화시키고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살아가다보니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돼요. 신자분들 통해서. (중략) 참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고, 또 의미 부여도 됐었고. 사제로서의 의미 부여도 됐었고. 그때는 참 힘들었지만, 나의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8)

유년기부터 사제생활을 통해 삶으로 체화된 배움은 고스란히 본당 사목으로 이어졌다. 주일학교의 어머니 모임인 자모회를 부모회로 바꾸어 아버지들의 모임을 추가로 마련하여, 부모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부모교육과 청소년

30 Galtung, J., 앞의 책; 변중현,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의 과제: 일상적 평화와 평화문화」, 『윤리연구』, 149(2025), 115쪽.

년 사목을 동시에 활성화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어린 적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 사목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을 성찰한 이후, 그는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동반하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역의 장애아동 부모들은 멀리서 자신의 아이를 데려왔고, 신자가 아니던 부모들까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사목하는 본당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본당마다 지닌 색다른 맥락과 특수한 상황을 세심히 살폈다. 신자들이 지닌 다양한 자원과 각자의 필요를 알아채어 본당신자들이 주체가 된 활동이 이어지도록 노력했다. 노인대학을 활성화시켜 독거노인을 동반하기도 했고, 이념적으로 분단된 공동체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고, 기도와 성찰을 위한 특강과 음악피정 등을 통해 신앙 안에서 치유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며 실행했다.

저의 평화는 곧 신자분들의 평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 대한 평화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평화로움을 느낀다 라는 것은, 함께 노력하면서 얻을 때 얻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내가 쉬고 싶다라는 느낌은 쉽인 거지. 그 안에서 오는 평화보다는, 진짜 평화는 같이 함께 노력해서 얻을 때 진짜 평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8)

프란치스코는 신자들의 평화가 곧 자신의 평화라고 말하며, 사

제의 삶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의 시작이 따스한 가정에서의 돌봄이었듯이, 평화의 결실은 다시금 사랑의 가족을 이루고 돌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만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가족 범위를 넓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더욱 많은 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확장되었을 뿐이다.

그에게 보내진 이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여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평화였기에, COVID-19로 온 교회가 문을 닫고 미사가 중단되었을 때 한달음에 신자들을 찾아갈 방법을 간구하였다. 그에게 신자들을 못 만난다는 것은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가정 방문 축복 기도라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전 신자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였다. 현관문 밖에 서서 간단한 축복식과 기도를 하고 신자들을 만나며, 폭풍과 같은 감염병의 위기와 단절을 이겨내고자 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항상 강조하였던 밖으로 나가는 교회, 교회의 담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변두리로 나아가 가장 소외된 이를 찾으라는 보편교회의 가르침과 닿아 있다.³¹ 그럼에도 본당 사목에서 모두의 필요를 살피고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진짜로 뭐가 또 내가 마음이 아팠다면, 주일학교에 한부모 가정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한 엄마가,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결국엔 이사를 가더라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근데 엄마가 그걸 못 견디더라고... 딸내미가 참 예뻐했는데. 다문화 아이였는데, 아 마 아빠가. 아빠하고 이혼하고, 아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갔나 봐요.

31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27항;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2014, 20항, 24항.

유치부생이었는데,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결국에는 이사를 갔지 (중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부분을 케어 할 수 있는 그게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자매한테, 여기서 유지하고 있던 평화가 깨질까 두려워 떠난 거니까,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5)

우리 사회에 늘어난 이혼가정과 다양한 문화 환경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여 예기치 않은 상처를 주게 되었던 경험, 봉사자들 사이의 의도 차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망과 공동체 안의 갈등을 겪으면서, 공동체의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포용하여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도록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배웠다.

근데 뭐 제가 노력한다 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도거리가 됐죠. (중략)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딜 가든지, 전에 있던 곳도 그랬었고, 사실은, 100% 뭐 우리가 숙제하는 것처럼, 100% 모든 걸 다 풀고 떠나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잖아. 모든 걸 다 정말, 말 그대로 평화로운 상태로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시면서 더 혼란스러워졌죠. 사실은, 정말 피도 많이 흘려야 됐고, 그 다음 사람들도, 그러면서 사실 정착을 한 거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목표의 방향은 분명히 있으셨으니, 하느님께서도. (중략)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분열을 일으켜 왔다. 근데 그 메시지가 그냥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니까 사실은.

(프란치스코와의 인터뷰 대화, 2025. 9. 8)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평화는 서로 다른 욕망과 입장, 상처와 불편함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관계 맺고,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이다. 본당 사제로서 프란치스코에게 사목적 평화란 공동체의 표면적 안정이 아니라 갈라진 관계를 다시 붙들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실천적 과정이며, 미처 끝내지 못한 미완의 숙제이기도 하다.

2. 미카엘 신부의 이야기

1) 풍부한 평화의 원체험과 가난에 의한 상실

미카엘에게 평화의 첫 기억은 넓은 마당이 있던 외할머니 댁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경제적 형편으로 어린 시절을 외가에서 보낸 그는, 외할머니의 각별한 사랑 속에서 자신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혀 갔다. 첫 손자인 미카엘을 유독 아끼던 할머니는 미카엘의 손을 잡고 극장으로 가서 만화영화를 보여주었고, 어쩌다 스프링이 달린 장난감 말을 실은 리어카가 동네에 오면 동전을 연이어 꺼내주시며, 미카엘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할머니는 되게 이렇게 힘이 셸거든요. 외삼촌이 이 큰 삼촌이, 이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무슨 고교야구 이런 거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만화 영화 재미있는 걸 하니까, 삼촌한테 만화 영화 틀어달라고 했던 말이죠. 그 삼촌이 안 된다고 좀 이따가 야구 끝나면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일렀어요. 그때 할머니가 삼촌을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만화 영화를) 봤죠, 외삼촌이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그는 할머니에게 ‘듬뿍 사랑을 받은’ 기억을 통해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던 시기를 회상한다. 이 기억은 그의 삶에서 평화의 원형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 평화는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 안에서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풍족한 감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경험은 곧 상실의 기억과 맞물린다. 일곱 살 무렵, 자신을 데리러 온 어머니를 따라 거주지를 옮겨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드디어 온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된 것이지만, 미카엘에게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집이 거기 이제 진짜 단칸방으로 이렇게 쪽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이었거든요. 거기 진짜 뭐 한 부엌이 있고, 방도 여기 한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단칸방에서 저하고 그 다음에 동생 남동생하고, 그다음에 또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화장실도 밖에 있고. (중략)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 이제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동생이 있고 동생이랑 나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동네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랬어요. 아마 그 속에는 뭐 이렇게 울분 같

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걸 왜 엄마는 안 해주지?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미카엘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니 그때의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는 평화가 단순히 현재의 정서 상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감각임을 보여준다. Crites(1986)에 의하면 현재는 회상하는 자신이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는 중추적 지점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³² 즉 미카엘에게 과거의 사건은 당시에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후 자기 성장 속에서 ‘평화의 상실’로 의미화 된다.

즉, 평화는 미카엘에게 어떤 순간에 명확하게 자각되는 구체적인 감정이라기보다, ‘결핍’과 ‘상실’을 바탕으로 의미화된 감각적 체험인 것이다. 미카엘은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한 평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뇌하는 평화주의자로 불린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겪은 극심한 가난과 상실, 정치적 상황에서 억압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진정성을 획득하고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얻은 것과 같이,³³ 이후 미카엘이 감각하고 살아내는 사제로서의 평화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32 Crites, S., “Storytime: Recollecting the Past and Projecting the Future”, in T. R. Sarbin(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p.163.

33 김혜경, 「실천하는 영성가 요한 바오로 2세의 평화의 관점에서 본 가난의 문제」, 『인간연구』, 21(2011), 46~47쪽.

2) 상실을 견디게 한 관계의 평화

미카엘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지만, 그는 상실의 시간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동네에서 또 다른 삶을 만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있었다. 이사 간 골목에는 또래 아이들이 넘쳐났고,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던져 놓고 하루 종일 함께 뛰어놀았다. 외가에서 잃어버린 평화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놀던 시간은 상실의 자리를 조금씩 메워 주었다. 미카엘은 다시 부자가 되었다, 친구 부자.

제 또래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에 한 가득인 거예요. 한 가득. 그리고 막 형들도 엄청 많고. 물론 뭐 거기에 좀 어려운 형들도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돈을 뺏어가는 형들도 있고, 막 그랬죠. (중략)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갔다 오면 이제 가방 던져놓고, 친구들이랑 계속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 비 오면 밖에 나가서 못 노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비포장도로도 많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아카시아도 따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 (중략) 골목도 많고, 주위에 약수터 같은 데 다니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구네 집에서 막 밥도 먹고, 자기도 하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그러나 그의 삶은 다시금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은 더욱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청소년이 된 미카엘 역시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를 절망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함께 견뎌

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늘상 경제적인 문제는, 그래도 일단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중략) 친구네 집에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 비디오가 있으니까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특히 연말 같은 때여 가지고 비디오를 한 두세 개 정도 빌리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보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막 새벽까지 이 비디오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3시인가 4시인가 쪼르르 나와 가지고, 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거기서 그냥 그 언덕에서 같이. 이렇게 막 눈이, 눈이 펄펄 왔어요. 그래서 소변보면서, 그 풍경을 바라봤던 그때가 엄청 행복했어요. 뭐, 그냥. 그래, 뭐 나쁘지 않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견딘 거죠.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가난은 미카엘의 삶에서 평화를 흔든 지속적인 조건이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 동안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고, 중학생 무렵에는 아버지의 사업과 보증 문제로 형편이 더욱 나빠졌다. 그러나 미카엘이 가난을 언제나 절대적 결핍으로만 경험한 것은 아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는 남들과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다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화는 풍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 부재와 유사한 처지를 공유하는 관계망 속에서 가능해진다. 즉 가난 자체가 평화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조건을 함께 견디는 관계는 가난이 초래하는 불안을 일정하게 완화한다. 이 시기는 미카엘이 훗날 사람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해하게 되는 형성 과

정으로 해석된다. 친구들은 가난을 없애 주지는 못했지만, 그 가난을 함께 견디게 해 주었다.

이 시기에 미카엘의 삶을 지탱해 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향하였고, 점진적으로 신앙을 형성하였다.

첫 번째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성당에 가서. 매주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바쳤어요. (중략)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때 성당에 들어갔어요. 아마 힘들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 한 9시도 넘는 시간이었거든요... 거기 맨 뒤에 앉아가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얼마나 한, 뭐 한 30~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문이 다 잠긴 거예요. 성당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 이게 그 관리장님들이 이제 문을 잠그시고, 다 저기 퇴근을 하셨다고.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신앙은 미카엘의 삶에서 평화를 가능하게 한 통로이다. 어린 시절 성당에 가기 싫어도 가야 했고, 교리를 빼먹고 놀러가거나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혼나기도 했지만, 중등학교 시기 어려움과 울분을 말할 곳이 없었을 때 그는 하느님에게 이야기하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의 울분을 풀어냈다. 이때 신앙은 강제된 의무의 장에서 내면의 불안을 털어놓는 통로로 전환된다.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속 권고로 젊은이들을 위해 발행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강조하듯이,

청소년들은 서로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³⁴ 미카엘에게도 친구와 기도는 현실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말할 곳 없는 감정과 울분을 견디게 하는 사적이고 관계적인 실천이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경험한 사랑이 평화의 원형이었다면, 청소년기의 관계와 신앙은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한 또 다른 평화의 토대가 되었다.

3) 교차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발견한 길

가난한 청소년기를 견뎌내던 미카엘에게 자아실현이나 진로 고민은 사치였다. 미카엘은 중학생 때 이미 신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저 스쳐지나가는 몽상으로 여겼다. 현생의 생존만으로도 너무나 버거웠던 미카엘의 삶에 이상의 실현은 꿈조차 꿀 수 없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단짝친구와 함께 다니는 고등학교 생활은 견딜만했고, 졸업한 이후 전산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업무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당시 미카엘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일이 힘들다는 사실보다, 그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제가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가서 알았어요. 그거는 좀 배우는 과목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34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128항, 129항.

그냥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머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중략) 일도 안 맞고. 그리고 또, 또 19살이기 때문에 좀 약간 인격적으로도 좀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중략)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중략) 직장 다닐 때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흥미로운 점은 미카엘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성공이나 실패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이 삭막해질 것 같더라”고 표현하였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차 긍정적인 마음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성찰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둔 뒤, 그는 다시 대학 입시를 준비하였다. 공부하는 그 자체로 즐거웠고, 자신의 내면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안정된 조건보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지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미카엘의 삶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 당시에는 독서실에서 잘 수 있었어요. 이불(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한 1시쯤 되면 다들 뭐 이불 펴고 자고. 뭐 일어나서, 일어나서 학원가고 막 그랬었죠. 나중에는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압박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편안했어요. (수능)공부하면서… 훨씬 낫죠. 훨씬 낫죠. 훨씬 행복했죠. (중략)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 언어 쪽이 너

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풀 때에, 시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그 시가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 시를 이래서 읽는 건가?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시 읽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아, 이 시가 이렇다고? 어, 소설이 이렇다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밤새 독서실에서 보내고 수능공부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문제집을 풀면서도 지문에 나오는 시와 문학에 감동받았고, 그렇게 국문학도의 꿈을 키우며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런 미카엘의 삶의 방향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다시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을 맞는다.

단 한 번도 진로에 관해 얘기하지 않던 미카엘의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며 예비신학교에 지원하기를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생전 처음 꺼낸 어머니의 말은 미카엘이 몽상으로 취급하고 흘려보낸 사제 성소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 엄마, 우리, 우리 어 우리 사는 게 지금 이런데,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슨 이런 거를, 예비신학교 또 뭐 신학교를? 또 만약에 예비신학교 해가지고 신학교에 붙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당신 평생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던 양반인데, 그래 그러면 뭐. 엄마, 그러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평생소원이면 한 번 들어드리겠다고.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이처럼 예비신학생 과정에 들어가는 일은 어머니의 권유와 기대에서 출발했다. 어머니가 당신의 평생소원이라고 말했을 때, 미카엘은 그것이 돈 드는 일은 아니니 소원을 들어드린다는 명목으로 예비신학교 과정을 시작한다. 이때 사제 소명은 아직 자기 내면의 확신이라기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성에 기반하여 소원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인 미카엘을 유난히 따르던 남동생이 미카엘이 예비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집안을 지탱해 줄 형의 존재에 기대 온 동생은 분노에 가까운 배신감을 형에게 표출한다. 미카엘은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동생이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근데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동생의 이 한 마디는 미카엘이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돌려놓게 만들었다.

“근데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동생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 까.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으면 어떡하지?’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제 스스로 물어보니까. 아, 이게 엄마한테 엄마 소원 들어주는 거야, 지금까지는 엄마한테… 그 목적이라든가 의미를 이렇게 미루고 다녔는데. 저 스스로한테 딱 물어보니까, ‘합격을 했어? 그럼 신부가, 신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17)

미카엘은 처음으로 사제의 길이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신학교에 합격하면 갈 것인가를 스스로 물었을 때 자신이 신부가 되고 싶다

는 사실을 자각한다.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어머니의 권유와 동생의 분노로부터 발견한 미카엘의 소명은 철저히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다. 미카엘에게 사제 소명은 가족의 관계와 위기 속에서 확인된 죄책감과 책임의 문제를 남기는 길이었다. 미카엘은 신부가 되면서 가족 행사와 장남의 책임에서 암묵적으로 면제되었고, 지금 까지도 남동생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주목할 점은 미카엘의 소명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특별한 종교적 체험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는 삶의 갈림길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고, 다소 미뤄졌더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응답하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느꼈던 공허함, 공부하면서 경험한 기쁨, 어머니의 권유, 그리고 동생과의 갈등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했고 이러한 서사는 모두 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연결되었다.

미카엘에게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던 조바심”은 “불평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만났지만, 결국 삶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고 기쁨과 담대함을 발견하여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³⁵ 즉 미카엘에게 평화는 관계를 맺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삶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4) 원만한 관계를 위한 장애물 피하기

미카엘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았고, 성

35 교황 프란치스코, 위의 글, 138항, 141항.

장하며 신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친구와 동료와 맺는 친밀한 관계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화를 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애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감하게 대처했다. 미카엘은 자신을 대신해서 장남 역할을 하게 될 동생을 잃을까 걱정했고, 늦은 나이에 입학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챙기려 했고, 보좌신부로서 주임신부에게 맞추려 했고, “모나게 굴지 않는” 주임신부가 되려고 노력했다.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또한 본당사목을 할수록 미카엘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은, 신자들과의 관계이고 특히 그들과 함께하는 미사였다. 그래서 미카엘은 충실하게 미사를 봉헌하는 것을 최우선에 둔다. 강론을 쓰면서 자신의 매일을 성찰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묵상을 새롭게 나누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여겼다. 자신의 고해와 같은 강론을 쓰고 성찰에 큰 의미를 두는 미카엘의 강론 주제는 다양하고 골고루 차려진 풍성한 식탁과 같다.

그런데 강론의 주제에 대해 미카엘이 “편식을 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먹지 못하는 주제가 있다. 그건 바로 정치적인 이슈였다. 주위 선배 신부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와 직접 목격한 상황들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면 너무나 극적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았고 또 스스로도 관계 상실의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시절 가장 친한 친구들과 여행에서 겪은 체험은 미카엘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야 오겹살이나 한 번 먹으러 가자. (중략)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뒤풀이 형식으로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정치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먹질하면

서 싸울 뻔했어요. 모두 다 엄청나게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 정치인이) 중요한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고? 친한 친구인데, 정치적인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중략) 싸웠던, 그 체험이 가장 컸어요. 정치적인 걸로 싸웠거든요.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보면, 싸울 만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심각했어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친구들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정치적인 걸로 주먹질하면서 싸울 뻔했던” 경험은 특히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미카엘에게는 피해가고 돌아가야 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는 어릴 때부터 형성된 자기정체성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미 확립된 서로의 자아상을 부정하고 설득하려는 것은 미카엘에게 “피비우스의 띠를 계속 도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선배 신부님이) 사회 교리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강론을 하시는데, 조금 뭐 거기에 좀 약간 정치적인 것들이 가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강론 중에) “신부님 좀 이제 그만 좀 하죠” 라고 (중략) 신부님이 “이건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하시니)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럼 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구 그 미사 중간에 나가버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고해 성사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신부님, 고해성사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정의구현 사제단이요?” (중략) 나는 당신이 (정의구현사제단이면) 정의구현사제단인 당신한테 고해성사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고. 엄청나게 민감한 분들이 많아.

약간 좀 시니컬하게 하시는 (선배 신부님)분들은, “그 얘기하지 마 (웃음).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마.” 신부님이 얘기해 봐야 설득이 안 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건 설득 안 하고, 설득이 안 돼.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이처럼 미카엘이 정치적인 주제를 피하는 이유는, 한국의 가톨릭교회 문화 안에서 신학생, 부제, 사제로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듣고 목격하며 학습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한 회피와 침묵은 또 다른 의미를 구성하며, 주로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침묵을 깨뜨리기는 쉽지 않다.³⁶

그럼에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분열을 일으키고 폭력으로 내닫는 정치적인 상황을 그저 자연스러운 정체성 표현으로만 보기는 어려웠다. 더욱이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주제는 피한다고 봐야죠.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중략)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아니, ‘그거 네가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너가 틀리고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건 중요치 않아. 근데 왜 화를 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중략) 계속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분열을 조장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

36 Andrews, M., “Beyond Narrative: The Shape of Traumatic Testimony”, in M. Hyvärinen, L.-C. Hydén, M. Saarenheimo & M. Tamboukou(eds.), *Beyond Narrative Coh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2010, p.161.

으로 이용하려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는, 진짜 특히 분열을 겨냥해서 돈을 벌려는 놈들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이름을 파는 거라고 생각해. 흑세무민한다고 생각해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미카엘은 가톨릭교회에서 강조하는 정의와 평화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거스르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참지 않지만, 웬만하면 자연스럽게 다 함께 어울려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일상이 평화라고 느꼈다. 이를 위해서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누구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여 갈등상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강우창 외(2024)가 가톨릭사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제들이 가톨릭교회가 공적 현장에서 진지하게 목소리를 내야할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다뤄야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사목현장에서 자기 스스로는 언급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³⁷

5)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끄러운 성찰

미카엘에게 평화는 결코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사목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마주하였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진학한 신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 시험에 대한 압박감, 보좌신부로서 겪은 주임 신부와의 갈등, 타인의 요청에 충분히 응답하

37 강우창 외, 같은 책.

지 못한 경험, 더 잘 해내고자 하는 강박과 피로는 평화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마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목에 생선 가시가 딱 걸려 있는 것처럼 계속 걸리는 거죠. 폭 쉬지 못하게 만들고, 이걸 다 해야지. 나중에 이걸 해야지, 이게 목표지만. 게다가 또 누가 나한테 강요하지도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그런 강박이 아닌 그런 강박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이게 목표를 추구하는 게, (중략)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저한테 갈등이 형식이 되는 거죠, 계속.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미카엘은 자신의 열심조차도 강박적인 욕심이 될까봐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습관을 지녔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노력했고, 더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조차도 “욕심이고 집착”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스스로 투신하는 일이 ‘자신의 욕심인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부단히 식별하려고 애썼다.

미카엘은 인터뷰대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나 자신이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진실을 왜곡했을까봐 우려하고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건, 사안, 사유의 연결을 곰곰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반성했다. 그는 일상과 사목현장에서 자신의 실패를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평화를 잃고 부끄러운 순간조차도 숨기지 않고, 내면으로 성찰하고 밖으로 드러냈다.

세 번째 인터뷰대화를 하던 날, 미카엘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화를 연구자에게 들려주었다. 미카엘은 병

원진료와 사목 상담을 마친 뒤, 피곤한 몸으로 사제관으로 들어가다가 연이어 세 사람을 만났다. 처음에는 말을 부풀리며 후원을 요청하던 노신사를 만났다. 웬지 모를 피로감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서는데, 곧이어 노숙인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왔다. 미카엘은 앞서 느낀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 보지도 않은 채, “아,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남아시아 출신인 듯한 20대 중반의 외국인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더~”하면서 신부를 불렀다. 미카엘은 오늘따라 왜 자꾸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무슨 날인가?” 싶었다. 그런데 막상 청년이 요청한 것은, 돈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외국인 청년에게 축복을 해 준 뒤, 사제관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근데, 딱. 이 친구를 안수해주고 보내고 나서, 제가 딱 사제관으로 들어오니깐, (노숙인으로 보였던) 이 사람이 나한테 원했던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왜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뿌리치고 들어온 그제, 이게, 이게 그래도 되나? 그래 가지고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더니, 그 시간에 그냥 가셨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한편, 내가 왜 그랬지? 만약에 이분을 보통 상황에서 만났으면, 내가 똑같이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을까?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했을까...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왜 그랬을까. 예전에도 내가 그랬나?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미카엘은 이 경험을 단순한 후회로 남겨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피곤했기 때문인지, 짜증이 났기 때문인지, 스스로 자신에게 다

시 질문을 던졌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에게 평화는 감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한 공감과 자비를 잃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경영하는 일이었다.

마음이 잘 보기 위한, 잘 듣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지나치기 쉬우니까. 또 지나치고 나서도 그것이, 어 내가 지나쳤네, 그러고 그런 의식조차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뭐 그래서,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도가 됐든,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장치 취미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꾸려나가지 않으면, 이게 경영하지 않으면, 마음을 경영한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 마음을 잘 경영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이러한 성찰은 다시 그의 사목으로 이어졌다. 그는 강론을 준비하는 과정을 단순히 신자들에게 전할 내용을 만드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강론은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질문이었다. 노숙인으로 보였던 남성을 지나친 사건이 있었던 날, 그는 라자로와 부자의 비유를 묵상했었다. 부자가 왜 라자로를 지나쳤는지를 성찰하던 바로 그날, 자신 또한 누군가를 지나쳤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강론 안에서. 아, 이거 이것 좀 부끄럽다. (중략) 이거 신자들에게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또 이러면서,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명확하게 분명해지는 거죠. 야, 이거는 좀 빼고 싶은데. 그럼, 왜 빼고 싶지? 아, 부끄럽잖아. (중략) 그래도 이제 강론을 쓰면서… 야, 너는, 보통 이제 신자들에게 용서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데. 너는 그게 과연, 어, 니가 이렇게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그것을 너 자신은 잘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냥 뭐 부끄럽지만… 저는 그래서 강론하면서, 너도 들어라. 강론하는 너도, 잘 들어라, 하면서 저한테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좋은 양심 성찰은 그래도 제가 쓰는 강론이 아닐까(싶습니다).

(미카엘과의 인터뷰 대화, 2025. 9. 27)

이 과정에서 평화는 자기 마음의 평온만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사목적 평화는 단순히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와 한계 속에서도 끊임 없이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며 타인을 향해 어떻게 열려 있을 것인가의 문제였다. 따라서 미카엘에게 평화는 어느 날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지속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된다.

V. 논의

■ 본 연구는 가톨릭 본당 사제의 삶에서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고자, 두 사제의 삶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생애사적 경

험과 사목 현장 안에서 평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피보았다. 그 결과, 사제의 평화는 사제직을 통해 이미 완성된 종교적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국면 속에서 흔들리고 다시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적·생애사적·사목적 감각으로 드러났다. 가톨릭 사제의 길을 살아내고 있는 프란치스코와 미카엘의 내러티브를 통해 발견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사제의 평화는 모두 유년의 돌봄과 관계 경험에서 출발하였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는 부모의 돌봄과 가족 안에서 경험한 안정감에서 시작되었고, 미카엘에게 평화는 외할머니에게 온전히 사랑받았던 기억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평화는 추상적인 교리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보호받고 있다는 삶의 감각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평화의 원형은 지식이나 신념 이전에 관계 속에서 먼저 체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평화가 개인의 내면에서 홀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감각되고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사제의 평화는 안정된 기억에만 머물지 않았다. 프란치스코의 평화는 상처받은 이들에 대한 감응을 통해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되었고, 미카엘의 평화는 상실과 가난, 가족 갈등과 죄책감을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프란치스코가 배제된 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공동체와 제도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평화를 살아냈다면, 미카엘은 평화롭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조정하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평화를 살아냈다. 두 사람의 서사는 서로 다른 길을 보여주지만, 공통적으로 평화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계속 형성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둘째, 사제의 평화는 사제직 안에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두 사제 모두 사제직을 평화의 직분으로만 경험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는 소명의 흔들림, 자신의 과오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평화가 계속 시험되는 경험을 하였다. 미카엘 역시 신학교 생활과 신부로서의 부담, 현재까지 이어지는 강박과 피로, 사목 현장에서 타인의 요청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경험을 통해 평화가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사제직은 평화가 완성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가 계속 시험되고 새롭게 선택되는 자리였다.

이 점은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사제의 평화 사명을 보다 구체적인 삶의 차원에서 다시 이해하게 한다. 교회문헌은 사제를 복음 선포자이자 공동체의 봉사자로 제시하지만, 본 연구의 두 사제 이야기는 그러한 사명이 추상적인 직무 수행만으로 실현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사제는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이기 전에, 자신의 삶 안에서 평화가 흔들리는 경험을 통과하며 다시 평화를 배워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제의 평화는 직분의 권위나 종교적 언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한계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셋째, 두 사제의 평화는 내면의 고요에 머무르지 않고 사목적 실천으로 나아갔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는 상처받은 청소년, 장애인과 그 가족, 본당 공동체를 향한 돌봄의 실천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그의 서사에서 평화는 배제된 이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머물 수 있도록 공동체의 감각과 제도적 조건을 바꾸는 일과 연결되었다. 반면 미카엘에게 평화는 자기 안의 분노와 불안, 피로와 죄책감을 성찰하고 조율하며, 타인의 요청을 지나치지 않으려는 사목적 태도로 나타났다. 그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잘 보고 잘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론을 신자들에게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되돌아오는 양심 성찰의 자리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제의 평화가 하나의 방식으로만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의 평화가 공동체적 포용과 제도적 실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면, 미카엘의 평화는 생애사적 상처를 해석하고 자기 마음을 조율하는 성찰적 사목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평화는 개인적 안락함이나 무갈등 상태로 환원되지 않는다.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사목 현장에서 시험되며, 다시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실천된다.

이는 만남의 문화를 창조하고 관계적인 회심을 통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촉구해 온 보편교회의 비전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사제의 삶을 보여준다.³⁸ 평화를 거대한 담론이나 규범적 선언으로만 이해하는 기존 논의에 대해, 평화가 구체적인 생활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1990년 진행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후속 교황 권고로 발표된 「현대의 사제 양성」은 사제의 교육과정과 사제생활에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차원을 제시하는데, 곧 모든 사제 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기초가 되는 ‘인성 차원’, 사제 직무를 위한 자질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영성 차원’, 목자의 가치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가치를 구체화하고 신앙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이성적 도구를 제공하는 ‘지성 차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 있고 유익한 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사목 차원’을 제시한다.³⁹

결국 가톨릭 사제가 살아가야 할 평화의 길은 네 가지 차원을 통합하는 전인적 여정인 것이다. 사제는 내면의 평화를 통해 자신을

38 이경아, 「복음적 관계와 만남의 문화: 포스트모던 사회의 관계 위기에 대한 사목신학적 고찰」, 『인간연구』, 58(2026), 122쪽.

39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문헌, 89항.

성화하고, 영성의 평화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며, 지성의 평화를 통해 진리의 빛을 선포하고, 사목의 평화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러한 평화의 삶은 일회적 사명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자기 형성과 공동체적 실천의 과정이다. 곧 사제는 ‘평화를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하며, 하느님의 평화를 구체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적 정의 속에서 구현해나가는 여정에 있다.

따라서 네 가지 차원의 양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고, 함께 상호 작용하여 이들이 서로 조화와 통합을 이루어야 함이 강조된다.⁴⁰ 그럼에도 개인이 접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저항과 갈등의 상황을 만나며 조정과정을 거치고,⁴¹ 특히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며 겪은 경험은 많은 흔적을 남기고 깊고 다양한 이해를 형성한다.⁴²

그러므로 같은 사제의 길을 걷고 본당 사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프란치스코 신부의 경우는 사목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에 집중하여 공적직무를 해석하며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실행해내고자 한다.⁴³ 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사목적 시선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이루며,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활동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평화의 모범인 그리스도를 따라 평화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사명에 강조점을 두고 살아내고 있다.

미카엘 신부의 경우는 인성 차원에서 강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신의 모범과 근본으로 여기며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켜

40 위의 문헌, 90항.

41 Dewey, J., *op.cit.*, p.36.

42 Cain, V., Clandinin, D. J. & Lessard, S., 『뿌리부터 이해하는 내러티브 탐구』, 염지숙 · 김아람 옮김, 학이시습, 2025, 31쪽.

4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앞의 문헌, 120항.

나가는데 중점을 둔다.⁴⁴ 이를 위해 균형 잡힌 대인 관계를 맺는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의 부족과 고독의 순간들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계발하고⁴⁵ 온전한 자기 개방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인격을 추구하며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두 사제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일치를 중심에 둔 영성 차원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사와 전례와 공동체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과 인격적 일치를 추구한다.⁴⁶ 이때 평화를 향한 사제의 영성은 세상의 평화 활동가나 교사와는 달리, 세속적 의미의 평화에 갇힌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초월적 가치에서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궁극적 평화를 지향한다.

반면에 보편교회가 강조해 온 평화증진에 대한 지성차원의 양성은 부족해 보인다. 신학교의 초기양성에서는 사제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철학 및 신학 과목의 방대함 때문에 사회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현대 사회과학이 이룬 평화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학문적 과정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서 요구되는 지성적 차원의 평화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탐색과 추가적인 교육 경로를 거쳐야만 했다.

이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제 성소의 선물』을 통해 현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교회적 변화를 반영한 양성의 내용과 방법을 쇄신하기를 촉구하며, 초기양성과 지속 양성을 통합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강조한 지점과 맞물린다.⁴⁷ 그럼에도 한국교회에서는 지속양

44 위의 문헌, 93항.

45 위의 문헌, 94항.

46 위의 문헌, 102항.

47 이준혜, 「시노달리따스 양성의 관점에서 사제 지속 양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6. 16쪽.; 전영준, 「한국 천주교

성과정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사실상 신학교에서의 초기 양성과는 다소 단절된 경향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보편교회의 가르침이 선언적인 문서로 머물러있어, 지역교회 내의 실현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드러낸다.

사제 양성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평화 이해에 대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학문 과정의 부재는 사제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평화의 스펙트럼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러한 결핍과 부조화는 결국 평화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로 내몰게 된다. 이는 프란치스코와 미카엘에게 주요했던 돌봄과 관계성의 가치가 내면으로부터 축적되어 공동체와 세상으로 확대되는 평화실현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하더라도, 각자의 일상적 회로에 갇히게 만들 위험이 있다.

개인의 작은 삶에서 겪은 경험과 습득한 앎을 더 큰 공동체적 삶으로 연결 짓고 확장하도록 촘촘히 설계된 교육과 양성과정이 체계화된다면, 가톨릭사제에게 요청되는 다양한 측면의 평화논의는 더욱 확장되고 신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를 체화시킨 부모의 돌봄은 지역 공동체와 국가 차원을 거쳐 세계와 우주적 생태의 돌봄으로 확대되고, 미카엘이 겪은 가정의 가난은 사회구조적 시스템과 거대한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에서 되풀이되는 정치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작동방식의 원리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보편교회는 현대사회에서의 여러 문제를 고민하여 풍요로운 사회교리를 축적하였고, 한국교회 역시 사회교리가 그리스도 인생관의 본질적 요소로서 교회의 모든 교육활동에 특히 신학교

와 양성기관에서 제공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⁴⁸ 그럼에도 평화 증진의 관점조차 언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국의 분단현실과 사회적환경은, 사제들과 신자들 모두가 체계적인 평화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게 만들어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더욱 깊이 있는 이념적 분단을 불러온다. 원만한 관계와 무난한 교회 내 작동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회피하는 상황은, 더 큰 영적 분단을 가져오고 이념적 한계에 봉착하게 만들어 또 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오히려 교회의 일치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평화를 추구하는 가톨릭교회의 공적역할을 확보하고 가톨릭사제가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제 개인의 역할을 촉구하기보다 교회 구조적 차원에서 선포하고 보호하는 공적장치와 체계적인 초기양성과정과 지속적양성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각 지역교구는 구태의연한 사목 체계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 교구의 문화와 특성 및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대의 평화감수성을 겸비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쇄신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VI. 결론

■ 본 연구는 두 사제의 이야기를 통해 사제의 평화가 내면적 안정이나 종교적 확신을 넘어서, 관계적·생애사적·사목적 실천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삶의 감각임을 확인하였다.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에서의 돌봄과 부족한 자신을 한없

48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앞의 글.

이 품어주시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무한한 사랑의 빛을 갇아가며 스스로 아버이가 되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해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받은 돌봄을 삶에서 만난 소외된 자녀와 새로운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버지 되기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곧 가톨릭사제 프란치스코에게 평화란, 돌봄이 필요한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하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배우고,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부모의 돌봄에서 시작된 평화는 상처받은 청소년을 향한 연민을 거쳐,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자신의 평화와 신자들의 평화를 하나의 삶으로 이해하는 평화로 성숙해 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평화의 여정에 놓여 있다.

미카엘은 아주 어릴 때 자연스럽게 느꼈던 풍족한 일상에서 궁핍한 생활세계로 변화를 겪었고, 게다가 청소년기에는 이중으로 겹쳐진 가난을 맞닥뜨리면서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미카엘이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간절한 기도였다. “관계가 1번”인 미카엘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한다는 의무감으로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곳으로 진학하고 취직도 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책임감에 짓눌려 엇갈린 경로를 걸었지만, 결국 가족 관계의 지지와 위기 안에서 자신이 이끌리는 지향을 발견하였다.

가톨릭사제 미카엘에게 평화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된 당연한 일상 속에서 친밀한 관계맺음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본당 신자들이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당연한 평화의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의 아픔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삶과 강론이 일치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다시

금 더 잘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압박감으로 다가왔기에, 자신의 노력이 욕심인지 주님의 순리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꾸준히 성찰하고 고백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의미와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평화를 개념적 정의나 교리적 규범으로 설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제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평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둘째, 사제를 직무와 역할의 차원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사랑과 상실, 흔들림과 성찰, 사목적 응답 속에서 평화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조명하였다. 셋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평화 연구가 국제정치나 제도적 담론을 넘어, 한 인간의 생애와 관계 및 사목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평화학과 가톨릭 사제 연구, 그리고 종교적 인간 이해의 접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물론 본 연구는 지역 교구에서 본당 사목을 수행한 두 사제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제의 평화 이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며 또한 보편적인 개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살아낸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 안에서 그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⁴⁹ 이를 통해 교회의 공적 역할과 구조적 차원의 쇄신이 필요함을 발견하였고, 교구차원에서 개별 사제들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양성과정의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제언 역시 참여자 수의 확대에 있지 않고, 평화를 살아가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의 삶을 더 깊이 탐구하는 데 있다.

49 Cain, V., Clandinin, D. J. & Lessard, S., *op.cit.*, p.127.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수도자, 평신도 지도자,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평화 서사를 탐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평화가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고 실천되는지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사제의 평화를 완성된 신앙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는다. 두 사제의 이야기는 평화가 사랑받은 돌봄의 기억과 상실, 관계와 갈등, 자기 성찰과 타인을 향한 사목적 응답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삶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프란치스코와 미카엘은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어왔지만, 두 사람 모두 평화를 선언하기보다 살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평화가 특별한 순간에 완성되는 이상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타인을 향해 다시 열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일상의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이해는 평화를 교리나 담론을 넘어 삶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사유하도록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평화를 향한 여정에서 첫 시작이 되어주신 현실의 프란치스코와 미카엘 신부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로 함께해주신 익명의 프란치스코와 미카엘 신부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들의 사랑과 배려가 없었다면, 본 연구는 존재할 수 없었다. 또한 사목 현장에서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가톨릭사제들께도 감사와 사랑의 응원을 보낸다.

- 교황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3.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199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성소의 선물」(*The Gift of the Priestly Vocation*, 201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 교리(2판, ed.)」(*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².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4.
- _____,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9.
- _____,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2020),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1.
- _____,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Dilexit Nos*, 20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8.
- 강우창·손서정·정수용·조용신, 「가톨릭사제가 바라보는 통일과 교회」, 평화나눔 연구총서 25-01,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교회의 인식과 과제』, 천주교 서

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 2025.

김혜경, 「실천하는 영성이 요한 바오로 2세의 평화의 관점에서 본 가난의 문제」, 『인간연구』, 21(2011), 43-79쪽.

박우섭, 「평화의 개념 연구: 다양성과 공통성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5(2) (2017), 377~408쪽.

변중헌,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의 과제: 일상적 평화와 평화문화」, 『윤리연구』, 149(2025), 107~127쪽.

서보혁·허지영·강혁민·이병성·김신현경·이성용·이나미·황수환·이찬수·조계원, 『폭력개념 연구: 열 가지 사나운 힘의 해부』, 모시는사람들, 2024.

손서정, 『삶을 살리는 청소년 평화교육을 위한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4.

손서정·최준규, 「‘삶을 살리는’ 평화교육 모형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3(3) (2021), 5~23쪽.

이경아, 「복음적 관계와 만남의 문화: 포스트모던 사회의 관계 위기에 대한 사목신학적 고찰」, 『인간연구』, 58(2026), 101~136쪽.

이상근, 「‘안정적 평화’ 개념과 한반도 적용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49(1) (2015), 131~155쪽.

이정민,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족’: 나딩스의 돌봄 윤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7)(2022), 1-23쪽.

이준혜, 「시노달리타스 양성의 관점에서 사제 지속 양성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6.

전영준,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사제 양성을 위한 국가 지침 마련의 역사와 의미」, 『가톨릭신학』, 45(2024), 5-37쪽.

정지수·김경이, 「평화교육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20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인격교육』, 14(3)(2020), 65~86쪽.

홍영숙,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2019), 81~107쪽.

_____, 『내러티브 탐구: 이론적·철학적 바탕에서 논문작성까지, 그리고 Q&A』, 학지사, 2024.

- Andrews, M., "Beyond Narrative: The Shape of Traumatic Testimony", in M. Hyvärinen, L.-C. Hydén, M. Saarenheimo & M. Tamboukou(eds.), *Beyond Narrative Coherence*, Amsterdam: John Benjamins, 2010, pp.147~166.
- Boulding, K. E., *Stable Peac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8.
- Cain, V., Clandinin, D. J. & Lessard, S., 『뿌리부터 이해하는 내러티브 탐구』, 엄지숙·김아람 옮김, 학이시습, 2025.
- Clandinin, D. J.,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2013.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0.
- Crites, S., "Storytime: Recollecting the Past and Projecting the Future", in T. R. Sarbin(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New York: Praeger, 1986, pp.152~173.
- Dewey, J., *Art as Experience*, New York: Minton, Balch & Company, 1934.
- Galtung, J.,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들녘, 2000.
- Halík, T., 『상처 입은 신앙: 내 상처를 보고 만져라』, 오민환 옮김, 분도출판사, 2018.
- Mbembe, A., "The Society of Enmity", *Radical Philosophy*, 200, 2016, <https://www.radicalphilosophyarchive.com/article/the-society-of-enmity/>.
- Nodding, N.,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Nodding, N., 『배려와 도덕교육』, 고미숙 옮김, 교육과학사, 2018.



■ 본 연구는 가톨릭 본당 사제가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평화 논의는 국제정치·안보 등 거시적 차원에, 교회적 논의는 문헌과 신학적 해석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삶의 사건과 관계 속에서 형성·재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로 이해하고, 지역 교구에서 본당 사목을 수행해 온 두 사제 ‘프란치스코’와 ‘미카엘’의 살아낸 경험을 시간성·사회성·장소성의 맥락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사제의 평화는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고 흔들리며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관계적·생애사적·사목적 감각으로 드러났다. 첫째, 두 사제의 평화는 유년의 돌봄과 관계에서, 삶의 감각으로 체험되었다. 둘째, 사제직은 소명의 흔들림과 자기 한계 속에서 평화가 끊임없이 시험되고 새롭게 선택되는 자리였다. 셋째, 평화는 프란치스코에게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품는 공동체적·제도적 실천으로, 미카엘에게 상실과 상처를 성찰하며 마음을 조율하는 성찰적 사목으로 나아갔다. 다만 평화에 관한 지성적 차원의 양성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 교리조차 언급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반도 분단 현실은 사제와 신자 모두의 체계적·비판적 평화 논의를 제약하였다. 이는 사제직 수행이 개인의 노력을 넘어 교회의 구조적 양성과 공적 역할을 요청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평화, 가톨릭 사제, 내러티브 탐구, 삶의 경험, 돌봄, 관계성, 자기 성찰,
공동체, 과정으로서의 평화, 재구성



What Does Peace Mean to a Parish Pries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Peace Found in the Life Stories of Two Catholic Priests

Son, Seo Jeong

(Institute of Peace and Education for Reviving Life · International Peace Studies,
Catholic Education · Director)

Nam, Kyoung Wo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Korean Oral Literature, Humanities for
Unification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Jung, Soo Yong

(Korea Reconciliation Committee of Archdiocese of Seoul · Dogmatic Theology,
North Korean Studies · Vice Chairperson)

■ This study conducts a narrative inquiry to explore how Catholic parish priests understand and enact peace. Academic discussions of peace have generally concentrated on macro-level dimension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 while ecclesial discussions have focused on church documents and theology. In contrast, this study understands peace not as a

fixed concept but as a process formed and reconstructed amid life's events and relationships. Moreover, it examines the lived experiences of two parish priests ("Francis" and "Michael") through the continual interaction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The findings reveal that a priest's peace is not a completed state but instead emerges as a relational, biographical, and pastoral sense continually formed through wavering. First, both priests' peace originates in their childhood care and relationships, which are experienced as a lived sense prior to establishing doctrine. Second, the priesthood is a place where peace is constantly tested and chosen amid the wavering of vocation and the individual's own limits. Third, Francis's peace moves toward an inclusive, institutional practice embracing the excluded, while Michael's is a reflective ministry tending to loss and wounds. Yet, due to lacking an intellectual dimension of formation regarding peace and amid a national division that renders even Catholic social teaching difficult to invoke, the two priests and the laity are constrained from critically discussing peace. This suggests that the priesthood requires not only individual effort but also formation and public roles supported at the Church's structural level.

Keywords: peace, Catholic priest, narrative inquiry, lived experience, care, relationality, self-reflection, community, peace as a process, reconstruction

- ◎ 투고 접수 2026. 07. 02.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7.